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4 No.3 Serial No.141 2016.6. 27~43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6.34.3.27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사용 양태

: 단독주행동, 동시주행동, 동시부행동을 기준으로

Time Spent for Child Care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Young Children

권순범(SoonBum Kwon)[1*], 진미정(Meejung Chin)[2]

[1]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better estimate the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a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children under age 6 by taking concurrent activities into account. To assess time spent for child care, I differentiate child care activities into three types: primary activity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prim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and second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mployed mothers spent 145 minutes less than non-employed mothers in the total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during weekdays and this difference diminished to 62 minutes on weekends. Specifically there were differences in all types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during weekdays, while the difference was only significant in the average amount of primary time spent for child care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on weekends.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average ratio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with concurrent activities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during weekdays. By contrast, the average ratio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with concurrent activities of employed mothers was 5% higher than non-employed mothers on weekends. Lastly, the highest concurrent activity with child care activities was leisure followed by housework. This means that child care, leisure, and housework are somewhat related to each other among mothers.

▲주제어(Key words) : 취업모(Employed Mothers), 비취업모(Non-Employed Mothers), 자녀돌봄시간(Time Spent for Child Care), 동시행동(Concurrent Activities)

Ⅰ. 문제제기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을 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아버지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어머니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은 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업모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 시간일지를 통해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일관적으로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 M. Bianchi,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SoonBum Kw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uilding 222, 1 Gwanak-gu, Seoul 08826, Korea, tel: +82-02-880-8755, E-mail: bigwind1@snu.ac.kr

2000; A. C. Huston & S. Rosenkrantz Aronson, 2005; E. Joo, S. Kim, & M. Kim, 2014; Y. Lee & S. Lee, 2007; C. D. Zick & W. K. Bryant, 1996).

그런데 기존에 시간일지를 분석한 국내연구는 대체로 시간일지에 주된 행동(주행동)으로 기록된 돌봄만 분석하고 부차적 행동(부행동)으로 일어난 돌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중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즉 다른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미취학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거리가 있다. 실제 생활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돌보는 경우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L. Craig(2006)는 다른 행동을 하는 중에도 자녀와 같은 공간에 있고 자녀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시간일지 상에서 부차적인 돌봄으로 기록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간 중에도 부모의 모니터링과 개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와 미취학자녀 간의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활동을 돌봄시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주행동으로 일어난 돌봄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면 실제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간과할 뿐 아니라 부모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의 총량을 실제보다 적게 추정할 위험성이 있다. 어머니, 특히 취업모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느끼는 시간압박감이나 양육부담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봄시간의 총량은 물론 다른 행동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돌봄시간의 비율도 모두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록 압박감이나 피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행동 시간을 포함한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분석함으로써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미취학자녀 돌봄의 범위를 부행동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과소 추정되었던 돌봄 시간량과 동시행동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부담감을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부행동 시간을 분석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E. Park and S. Lee(2013)와 E. Joo et al.(2014)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자녀 돌봄의 범위를 확대해서 돌봄시간을 분석하였다. E. Joo et al.(2014)은 돌봄시간을 좁은 의미의 돌봄시간과 넓은 의미의 돌봄시간으로 구분하고 넓은 의미의 돌봄시간에 부행동 시간, 미취학자녀와 함께 한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을 포함시켰다. E. Park and S. Lee(2013)는 주행동과 동시행동, 자녀와 함께 한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을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는 또 다른 한계가 있다. 부행동으로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것과 주행동으로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이나 가사노동 하는 것 모두 자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중복되는 시간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돌봄시간을 과대 추정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행동 시간과 자녀와 함께 한 여가시간 등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행동 시간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한 점은 특정한 행동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행동이 동시행동의 한 범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행동을 했을 경우, 미취학자녀 돌봄은 주행동이면서 동시행동이 된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행동을 주행동과 부행동으로 구분하면서 부행동을 동시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정의에는 오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행동과 동시행동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시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동 여부와 동시행동 여부를 기준으로 생활시간조사 상의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생활시간조사 상의 시간은 ① 동시행동 없이 A만 한 경우(단독주행동), ② 동시행동을 하면서 주행동으로 A를 한 경우(동시주행동), ③ 동시행동을 하면서 부행동으로 A를 한 경우(동시부행동)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동시주행동과 동시부행동을 더한 것을 동시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행동으로 이루어진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파악하는 것은 돌봄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데 도움이 된다. L. Craig(2006)에 의하면 아버지가 단독행동으로 상호작용적인 돌봄을 하는 비율은 49%인 반면 어머니는 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L. Craig(2006)는 어머니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아버지보다 동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를 취업모와 비취업모에게 적용한다면 가용시간이 적은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동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동시행동 돌봄시간을 비교하고자 한다.

동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행동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R. W. Drago & J. C. Stewart, 2010; H. Kim & K. Nam, 2007; K. Nam & H. Kim, 2003). 이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 돌봄과 함께 일어난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미취학자녀 돌봄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

용하여 생활시간조사 상의 동시행동을 분석한 국내연구가 있긴 하지만(H. Kim & K. Nam, 2007; K. Nam & H. Kim, 2003) 자녀 돌봄을 기준으로 동시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 돌봄과 함께 일어난 행동을 실증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미취학자녀 돌봄이 일어나는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행동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은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시간 사용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모의 경우 평일에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주말보다 가용시간이 부족하며 이것은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주말에는 배우자가 집에 있기 때문에 평일과는 다른 시간 사용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취학자녀를 둔 어머니를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시간 사용 특성

시간은 상호배타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사용한 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행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취업모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가용시간이 비취업모보다 적다(S. Cha, 2010). 그러나 가용시간이 적다고 해서 모든 행동시간이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수면과 같이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동시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시간을 비교함으로써 근로시간이 다른 행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8년 미국의 시간일지를 분석한 S. M. Bianchi(2000)에 따르면 일주일 단위로 놓고 보았을 때 취업모의 수면시간은 55시간으로 비취업모다 6시간 적었으며, 개인유지시간은 취업모가 69시간, 비취업모가 74시간이었다. 그리고 여가시간에는 취업모가 29시간, 비취업모가 41시간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근로시간의 유무는 생활시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행동별로 차이가 있다. 수면이나 개인유지처럼 생존을 위한 필수시간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여가와 같이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았다.

가사노동시간은 여가시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가사노동시간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시기에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가사노동을 덜 하고 있긴 하지만 두 집단 간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들었다(S. M. Bianchi, 2000). 이는 비취업모의 가사노동시간이 꾸준히 감소하는데 반해 취업모의 가사노동시간은 특정 시점부터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부터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를 돌보는데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S. M. Bianchi, 2000; A. C. Huston & S. Rosenkrantz Aronson, 2005; S. E. Johnson, 2010; E. Joo et al., 2014; Y. Lee & S. Lee, 2007; C. D. Zick & W. K. Bryant, 1996). 그런데 자녀 돌봄시간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른 행동시간과 구분된다. 자녀 돌봄시간은 자녀의 발달적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린 자녀는 부모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의 자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M. A. Milkie, M. J. Mattingly, K. M. Nomaguchi, S. M. Bianchi, & J. P. Robinson, 2004; E. Park & S. Lee, 2013). 문제는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의 가용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가 느끼는 양육부담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이 양육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취업모는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 돌봄에 대해 부담감을 갖는다(T. Jung & H. Roh, 2005; J. Kim & H. Moon, 2006; N. Kim, E. Lee, S. Kwak, & M. Park, 2013; S. Yang & C. Shin, 2011). 이에 반해 비취업모는 긴 자녀 돌봄시간으로 인해 양육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T. Jung & H. Roh, 2005; Y. Lee & H. Min, 2014). 왜냐하면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한 취업모는 대리양육 등의 방법을 통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지만 비취업모는 자녀를 오랜 시간 직접 돌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이 시간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모의 양육부담감은 자녀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로 인해 취업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이 있다(T. Jung & H. Roh, 2005). 이러한 경향은 취업모가 자녀를 돌보면서 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C. L. Booth, K. A. Clarke-Stewart, D. L. Vandell, K. McCartney, and M. T. Owen(2002)은 자녀 돌봄을 자녀를 훈계하고 감독하는 등 일방향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도구적 돌봄과 자녀와 서로 도우며 자녀를 가르치는 등 양방향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도구적 돌봄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주말에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A. C. Huston & S. Rosenkrantz Aronson, 2005). 이처럼 어머니의 자녀 돌봄 방식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 돌봄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평일과 주말의 시간 사용 특성

생활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요일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의 일상은 일주일 단위로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요일에 따라 시간 사용 패턴이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취업모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해 평일과 주말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달라진다. 취업모 뿐만 아니라 비취업모도 평일과 주말에 따라 다른 시간 사용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개인의 시간 사용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시간 사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A. Kapur & C. Bhat, 2007). 이러한 이유로 시간 사용에 대한 배우자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해 부부의 생활시간을 함께 분석하기도 한다(S. Heo, 2008).

요일에 따른 시간 사용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근로시간이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C. R. Bhat & R. Misra, 1999; S. Cha, 2013; S. Heo, 2008). 즉 평일과 주말의 시간 사용을 비교함으로써 근로시간이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S. Heo(2008)는 근로시간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맞벌이가구의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맞벌이남성은 가사노동을 하는데 평일에는 40분, 토요일에는 62분, 일요일에는 88분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맞벌이여성은 평일에는 2.3시간, 토요일에는 2.9시간, 일요일에는 3.2시간을 할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근로시간이 가사노동시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S. Cha(2013)는 주말의 수면시간을 분석함으로써 근로시간의 감소가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S. Cha(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평일 수면시간은 7시간 20분이었으며 토요일에는 8시간 10분, 일요일에는 8시간 30분이었다. S. Cha(2013)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수면시간과 다른 행동시간 간의 관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취업모의 수면시간은 자유시간이나 가사 및 돌봄시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한 반면 비취업모의 수면시간은 자유시간, 가사 및 돌봄시간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이 특정한 행동시간에 주목한 것에 반해 K. Eun(2010)은 모든 행동시간을 살펴봄으로써 요일에 따라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근로시간은 평일에는 3.9시간, 토요일에는 3.0시간, 일요일에는 1.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과 같은 개인유지시간은 평일에는 10.6시간, 토요일에는 10.7시간, 일요일에는 11.4시간으로 일요일에 가장 많았다. 그밖에 무급노동시간은 평일에는 4.1시간, 토요일에는 4.4시간, 일요일에는 4.0시간으로 요일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K. Eun(2010)은 주5일 근무제가 막 도입된 시점의 생활시간을 분석했기 때문에 요일에 따른 근로시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된다면 주말의 여가사용 패턴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K. Eun(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주말의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란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로 인해 토요일에 쉬는 사람이 많아졌다. 1999년과 2009년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비교한 S. Cha(2011)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09년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2009년에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주5일 근무제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주말의 시간 사용 패턴도 기존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시간이 주말의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C. R. Bhat and R. Misra(1999)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평일의 근로시간은 주말의 자유재량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K. Eun(2010)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시간 사용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생활시간의 변화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취업모가 주5일 근무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비취업모는 배우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구분하여 그들의 주말 시간 사용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는 주중과 주말에 시간 사용 양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이 주중과 주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다. 근로시간이 다른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총량도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즉 동시행동이 일어나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3. 부행동과 동시행동

최근 시간일지를 사용한 외국연구는 부행동으로 일어난 자녀 돌봄을 포함해서 전체 자녀 돌봄시간을 분석한다(R. Connelly & J. Kimmel, 2015; L. Craig, 2006; N. Folbre & J. Yoon, 2007; N. Folbre, J. Yoon, K. Finnoff, & A. S. Fuligni, 2005; M. A. Mlikie, S. B. Raley, & S. M. Bianchi, 2009; C. D. Zick & W. K. Bryant, 1996). 왜냐하면 상당한 양의 자녀 돌봄이 부행동으로 수행되고 있어서 부행동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자녀 돌봄시간의 총량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C. D. Zick & W. K. Bryant, 1996). 부행동을 포함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는 시간의 총량을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L. Craig, 2006).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자녀 돌봄이라고 인식하는지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여기에는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 돌봄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부모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조차 한 공간 안에 있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모니터링하거나 관여할 것이다.

부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동시행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J. Folbre et al., 2005; M. A. Milkie et al., 2009). 부행동은 주행동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행동 유무를 통해 특정한 행동이 단독으로 일어난 것인지 다른 행동과 같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있다. S. Offer and B. Schneider(2011)에 의하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동시행동을 하며 추가적인 동시행동 시간에 주로 가사노동이나 자녀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동시행동이 자녀돌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행동 유무는 자녀 돌봄의 밀도(density)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L. Craig, 2006). 자녀 돌봄의 내용에 따른 동시행동 비율을 분석한 L. Craig(2006)에 따르면 신체적 돌봄이나 여행, 의사소통 같은 자녀 돌봄은 단독행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녀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수동적인 돌봄은 다른 동시행동과 같이 일어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시행동 유무에 따라 돌봄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행동을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은 행동에 따라 동시행동의 발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O. Sullivan and J. Gershuny(2013)는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행동을 범주화해서 행동별로 단독행동이 일어나는 비율을 구하였는데 임금노동은 단독행동으로 일어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돌봄이나 가사노동은 상대적으로 단독행동으로 일어나는 비율이 낮았다. 즉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동시행동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동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들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L. C. Sayer, 2007). 따라서 동시행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동별 특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부행동과 동시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일지 자료에서 주행동과 부행동을 함께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행동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기에 앞서서 유념할 점이 있다. 주행동이 측정방식에 영향을 덜 받는 것에 비해 부행동은 측정방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N. Folbre & J. Yoon, 2007). 부행동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측정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측정오차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행동의 측정오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집된 시간자료를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생활시간조사 자료와 비교 가능한 시간일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행동에 대한 측정오차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부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부행동 시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일지 자료에서 주행동 시간의 총합이 24시간으로 동일한 것과 달리 부행동 시간의 총량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주행동 시간을 분석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시간량을 가지고 부행동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R. W. Drago & J. C. Stewart, 201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 Craig(2006)와 O. Sullivan and J. Gershuny(2013)는 부행동을 포함한 돌봄시간을 비율로 제시하였다. 시간을 비율로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표준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돌봄시간을 비율로 제시함으로써 사람마다 다른 돌봄시간을 비교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한 시간량 뿐만 아니라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사용 양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미취학자녀 돌봄은 돌봄이 주행동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동시행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단독주행동, 동시주행동, 동시부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미취학자녀 돌봄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함으로써 돌봄시간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취학자녀 돌봄이 단독으로 일어난 것인지 다른 행동과 같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미취학자녀 돌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미취학자녀 돌봄을 단독주행동과 동시주행동, 동시부행동으로 구분했을 경우, 평일과 주말의 행동별 돌봄시간량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평일과 주말의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평일과 주말의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10분 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시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A. Shon, 2000).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주행동과 부행동, 행동이 일어난 장소, 함께 한 사람 등을 기록하게 하며 수집된 자료는 코딩과정을 거쳐 시간량 데이터, 시간대 데이터, 함께 한 사람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된다. 시간량 데이터가 주행동 시간과 부행동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동시행동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시간대 데이터로 시간량 데이터나 함께 한 사람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 데이터는 시간일지의 원자료라고 볼 수 있다.

2009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8,1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09 생활시간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20,263명이며 개인마다 이틀 동안의 생활시간을 기입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0,526개의 시간일지가 만들어졌다. 전체 시간일지 중에서 여성이 작성한 시간일지는 21,098개이며 가구원 중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시간일지는 2,394개이다. 그런데 생활시간조사가 가구단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2,394개의 일지 중에는 할머니와 같이 미취학자녀의 어머니가 아닌 경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구일련번호 당 일지 개구를 확인하여 한 가구에서 작성된 일지가 2개보다 많은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및 만 나이를 살펴봄으로써 미취학자녀의 어머니가 아닌 경우로 추측되는 일지 4개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를 비취업으로 구분하였다.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고용주와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근무시간에 대한 재량권이 임금근로자와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2,390개의 시간일지 중 비취업모의 시간일지는 1,456개(60.92%), 취업모의 시간일지는 722개(30.21%), 기타 여성의 시간일지는 212개(8.87%)이다. 여기에서 기타 여성의 시간일지를 제외한 2,178개의 시간일지를 최종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3. 분석방법

1) 생활시간조사 상의 시간구조

생활시간조사에서 시간은 <Table 1>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일지에서는 한 시간대에 최소한 한 가

Table 1. Structure of time in the Time Use Survey data

	(A) Time for primary activity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B) Time for prim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C) Time for second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Whether the activity is carried out in primary activity	Primary activity	Primary activity	Secondary activity
Whether the activity is performed with concurrent activities	Activity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Table 2. Integration of the variables of the same time line for obtaining the time spent for child care

	Primary activity	Secondary activity
Child care for child under age 6	10	1
Other activities	20	2
Non activity	-	0

지 행동을 기록해야 하는데 이때 기록되는 행동을 주행동(A+B)이라고 한다. 주행동은 '주로 무엇을 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한다. 시간일지에서 주행동은 누락되는 시간대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의 일지에서 주행동 시간의 총합은 24시간으로 동일하다. 주행동 시간은 동시행동 여부에 따라 단독주행동 시간(A)과 동시주행동 시간(B)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일지에서는 동시에 여러 행동을 했을 경우 주행동과 부행동을 같이 기입하도록 한다. 부행동은 '그밖에 무엇을?'이라는 질문으로 측정하며 한 시간대에 하나의 부행동만 기록할 수 있다. 시간일지에서 부행동이 없는 시간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행동 시간(C)의 총합은 일지마다 다르다. 특정한 행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시행동은 주행동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부행동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동시주행동 시간과 동시부행동 시간의 합을 동시행동 시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체 시간은 단독주행동 시간, 동시주행동 시간, 동시부행동 시간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2)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2009 생활시간조사에서 미취학자녀 돌봄으로 분류된 행동은 '신체적 돌보기(S511)', '공부 봐주기, 책 읽어주기(S5121)', '놀아주기(S5122)', '미취학 아이 간호(S5191)', '기타 미취학아이 보살피기(S5192)'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사용한 시간의 총합을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으로 정의하였다.

3) 행동별 돌봄시간

시간대 데이터에서 시간대별로 일어난 행동은 변수로 취급된다. 시간일지에서는 10분 단위로 행동이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의 일지에는 144개의 시간대가 존재한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주행동과 부행동이 있기 때문에 총 시간대 변수는 288개이다. 동시행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시간대의 주행동과 부행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대 변수에서 행동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Table 2>와 같은 방식으로 변수값을 숫자로 변환한 후 시간대별로 존재하는 주행동과 부행동을 하나의 행동으로 통합하였다.

<Table 2>에서 보듯이 미취학자녀 돌봄이 주행동으로 기록되었을 때는 10, 부행동으로 기록되었을 때는 1로 코딩하였으며, 미취학자녀 돌봄 외의 행동은 모두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미취학자녀 돌봄 외의 행동이 주행동으로 일어났을 때는 20, 부행동으로 일어났을 때는 2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행동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였는데 <Table 2>에서 '행동 없음'이 부행동에만 표시된 것은 주행동 시간에는 누락이 없기 때문이다. 동일 시간대의 주행동과 부행동을 더하면 행동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은 미취학자녀 돌봄이 동시행동 없이 주행동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된 변수를 미취학자녀 돌봄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주목할 점은 '11'과 같이 미취학자녀 돌봄이 주행동과 부행동으로 동시에 일어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동시에 서로 다른 영역의 미취학자녀 돌봄을 한다는 것인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미취학자녀 돌봄을 반복해서 계산함으로써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행동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미취학자녀

Table 3. Variable values based on child care activities

	Primary activity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Prim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Second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Variable values	10	11, 12	21

돌봄이 주행동과 부행동으로 동시에 일어난 것을 동시주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된 시간대 변수 144개를 생성하였다. 생활시간조사에서 행동단위는 10분이기 때문에 144개의 변수에서 각각의 행동이 등장한 빈도를 알면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 사용한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동별로 144개의 시간대를 통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더미변수 처리방식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동시주행동으로 일어난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11'과 '12'라고 코딩된 시간대에만 '1'이라는 값을 주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0'이라는 값을 부여하였다. 그러고 나서 144개의 시간대에 '1'이 나타난 빈도를 측정하고 여기에 10을 곱해 동시주행동 돌봄시간을 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단독주행동 돌봄시간과 동시부행동 돌봄시간을 구하였다.

4)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시간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행동별 돌봄시간을 구한 방식과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였다. 다만 시간대별로 주행동과 부행동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미취학자녀 돌봄 외의 행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을 동시주행동과 동시부행동으로 구분하였는데 동시에 일어난 행동의 비율을 살펴볼 때에는 동시행동 자체에 의미를 두고 동시주행동과 동시부행동을 구분하지 않았다. 144개의 시점에서 각각의 동시행동 변수값이 나온 빈도를 알면 해당 동시행동을 하는데 사용한 시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시간은 일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동시행동 시간에서 각각의 동시행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유지가 10%라는 것은 미취학자녀 돌봄을 하면서 동시에 한 행동시간의 합에서 개인유지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라는 것을 의미한다.

5)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평일/주말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행동별 돌봄시간의 차이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평일/주말 여부에 따라 행동별 돌봄시간이 다른지 알기 위해 요일을 기준으로 집단별로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이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평일/주말 여부에 따라 다른지 알기 위해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을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취업모는 361명, 비취업모는 728명이다. 취업모의 평균 연령은 33.97세로 비취업모의 평균 연령(33.07세)보다 더 높았다(t=3.13, p < .01). 교육수준에서 대학 이상 비율은 취업모가 58.20%, 비취업모가 54.40%였는데 교차분석 결과 두 집단의 교육수준 비율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미취학자녀수는 취업모가 1.27명, 비취업모가 1.37명으로 취업모의 미취학자녀수가 더 적었다(t=-3.05, p < .01). 2009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미취학자녀수와 10세 이상 자녀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자녀수는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자녀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주업시간과 부업시간을 더한 취업모의 평균 주간근로시간은 42.29시간이었는데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취업모가 법정 기준시간보다 오래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모의 근무형태를 보면 전일제로 근무하는 취업모가 277명, 시간제로 근무하는 취업모가 84명으로 전일제 근무가 주를 이루었다. 2009 생활시간조사에서 월평균소득은 개인단위로 조사하며 근로소득 외에 이전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다. 비취업모 중에서도 월평균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비취업모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소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Table 4.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89)

(unit: person)		Employed mothers (*n*=361)	Non-employed mothers (*n*=728)	χ^2/t
Average age		33.97 (4.59)	33.07 (4.52)	**3.13** **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41.80	45.60	1.39
	College or more	58.20	54.40	
Average number of child under age 6		1.27 (.47)	1.37 (.52)	**-3.05** **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42.29 (16.29)	-	-
Employment type(%)	Full time	76.73	-	-
	Part time	23.27		

** p < .01

Table 5. The average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on weekdays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N=1,283)

(unit: diary)	Employed mothers (*n*=436)		Non-employed mothers (*n*=847)		*t*
The average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Mean (H:M)	S. D. (H:M)	Mean (H:M)	S. D. (H:M)	
Child care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1:29	1:10	3:30	2:01	**-22.66** ***
Child care with concurrent activities	0:19	0:43	0:43	1:11	**-7.57** ***
Prim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0:06	0:19	0:13	0:28	**-5.68** ***
Second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0:13	0:36	0:30	1:00	**-6.24** ***
Total	1:48	1:32	4:13	2:27	**-21.76** ***

*** p < .001

Table 6. The average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on weekends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N=895)

(unit: diary)	Employed mothers (*n*=286)		Non-employed mothers (*n*=609)		*t*
The average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Mean (H:M)	S. D. (H:M)	Mean (H:M)	S. D. (H:M)	
Child care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1:53	1:35	2:50	1:53	**-7.80** ***
Child care with concurrent activities	0:40	1:04	0:45	1:16	-1.16
Prim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0:10	0:22	0:10	0:27	-.17
Second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0:30	0:57	0:35	1:07	-1.24
Total	2:33	2:01	3:35	2:24	**-6.75** ***

*** p < .001

2.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비교

1)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평일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비교

어머니의 평일 돌봄시간은 <Table 5>와 같다. 단독주행동 돌봄시간은 취업모가 1시간 29분, 비취업모가 3시간 30분으로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만 돌보는데 2시간 정도 더 할애하였다(t=-22.66, p < .001). 자녀를 돌보면서 부차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시간은 취업모가 6분, 비취업모가 13분으로 단독주행동 돌봄시간과 마찬가지로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5.68, p < .001).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취업모가 13분, 비취업모가 30분으로 비취업모가 더 많았다(t=-6.24, p < .001). 동시주행동 돌봄시간과 동시부행동 돌봄시간을 더한 동시행동 돌봄시간은 취업모가 19분, 비취업모가 43분으로 비취업모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t=-7.57, p < .001). 행동별 돌봄시간을 모두 더한 전체 돌봄시간은 취업모가 1시간 48분, 비취업모가 4시간 13분으로 2시간 30분 정도 차이가 있었다(t=-21.76, p < .001).

Table 7. The average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of the employed mothers by the day of the week (N=722)

(unit: diary)	Weekdays (*n*=436)		Weekends (*n*=286)		*t*
The average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Mean (H:M)	S. D. (H:M)	Mean (H:M)	S. D. (H:M)	
Child care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1:29	1:10	1:53	1:35	**-3.72** ***
Child care with concurrent activities	0:19	0:43	0:40	1:04	**-4.83** ***
Prim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0:06	0:19	0:10	0:22	**-2.65** ***
Second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0:13	0:36	0:30	0:57	**-4.37** ***
Total	1:48	1:32	2:33	2:01	**-5.35** ***

***p < .001

Table 8. The average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of the non-employed mothers by the day of the week (N=1,456)

(unit: diary)	Weekdays (*n*=847)		Weekends (*n*=609)		*t*
The average amount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Mean (H:M)	S. D. (H:M)	Mean (H:M)	S. D. (H:M)	
Child care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3:30	2:01	2:50	1:53	**6.45** ***
Child care with concurrent activities	0:43	1:11	0:45	1:16	**-.64**
Prim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0:13	0:28	0:10	0:27	**2.02** *
Second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0:30	1:00	0:35	1:07	**-1.60**
Total	4:13	2:27	3:35	2:24	**4.89** ***

*p < .05, ***p < .001

2)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주말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비교

어머니의 주말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은 <Table 6>과 같다. 취업모의 단독주행동 돌봄시간은 1시간 53분인데 반해 비취업모는 2시간 50분으로 비취업모가 미취학자녀만 돌보는데 1시간 정도 더 할애하였다. 동시주행동 돌봄시간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10분이었으며 동시부행동 돌봄시간은 취업모가 30분, 비취업모가 35분이었다.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동시에 다른 행동을 하는 시간은 취업모가 40분, 비취업모가 45분으로 나타났다. 행동별 돌봄시간을 모두 더한 전체 돌봄시간은 취업모가 2시간 33분, 비취업모가 3시간 35분으로 1시간 이상 차이가 있었다.

취업 여부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알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행동별 돌봄시간 중에서 단독주행동 돌봄시간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7.80, p < .001). 동시주행동 돌봄시간과 동시부행동 돌봄시간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동시주행동 t=-.17, 동시부행동 t=-1.24). 동시주행동 돌봄시간과 동시부행동 돌봄시간을 더한 동시행동 돌봄시간 역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t=-1.16). 취업 여부에 따른 주말의 전체 돌봄시간 차이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6.75, p < .001).

3) 평일과 주말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 비교

<Table 7>은 평일, 주말 여부에 따른 취업모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취업모의 평일 단독주행동 돌봄시간은 1시간 29분으로 주말보다 24분 정도 적었다(t=-3.72, p < .001). 동시주행동 돌봄시간은 평일에는 6분, 주말에는 10분으로 주말에 더 많았으며(t=-2.65, p < .001), 동시부행동 돌봄시간도 평일에는 13분, 주말에는 30분으로 주말에 더 많았다(t=-4.37, p < .001). 행동별 돌봄시간을 더한 전체 돌봄시간도 주말에는 2시간 33분으로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평일보다 45분 정도 더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5.35, p < .001). 취업모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은 평일에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미취학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Table 8>은 비취업모의 평일과 주말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비취업모의 단독주행동 돌봄시간은 평일에는 3시간 30분, 주말에는 2시간 50분으로 주말에 40분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6.45, p < .001).

Table 9. The average ratio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on weekdays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N=1,266)

(unit: diary)	Employed mothers (*n*=424)		Non-employed mothers (*n*=842)		*t*
The average ratio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Mean (%)	S. D. (%)	Mean (%)	S. D. (%)	
Child care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86.92	23.29	86.30	18.54	.48
Child care with concurrent activities	13.08	23.29	13.70	18.54	-.48
Prim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3.88	11.49	4.51	9.33	-1.06
Second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9.20	20.73	9.19	15.77	.01

Table 10. The average ratio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on weekends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N=885)

(unit: diary)	Employed mothers (*n*=282)		Non-employed mothers (*n*=603)		t
The average ratio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Mean (%)	S. D. (%)	Mean (%)	S. D. (%)	
Child care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77.79	29.14	82.38	22.81	**-2.33** *
Child care with concurrent activities	22.21	29.14	17.62	22.81	**2.33** *
Prim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5.88	14.21	3.90	9.29	**2.14** *
Second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16.33	26.66	13.71	21.57	**1.44**

*p < .05

동시주행동 돌봄시간도 평일에는 13분, 주말에는 10분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02, p < .05). 단독주행동 돌봄시간과 동시주행동 돌봄시간과 달리 동시부행동 돌봄시간은 평일과 주말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t=-1.60). 그리고 동시행동 돌봄시간도 평일에는 43분, 주말에는 45분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64). 전체 돌봄시간을 비교했을 때, 비취업모는 평일보다 주말에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38분을 적게 할애하였다(t=4.89, p < .001).

3.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1)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평일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Table 9>~<Table 12>는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비율의 일지 수와 시간량의 일지 수가 다른 것은 시간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이 없는 일지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시간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이 분모에 오게 되는데 분모가 '0'인 경우 비율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었다. 그리고 단독주행동과 동시행동의 표준편차가 같게 나온 것은 단독주행동 시간비율과 동시행동 시간비율이 합이 100%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독주행동 시간비율과 동시행동 시간비율의 t-value도 절대값을 취하면 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평일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able 9>와 같다. 단독주행동 시간비율은 취업모가 86.92%, 비취업모가 86.3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48). 동시행동 시간비율은 취업모가 13.08%, 비취업모가 13.70%로 단독주행동과 마찬가지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48). 취업모의 동시주행동 시간비율은 3.88%, 비취업모의 동시주행동 시간비율은 4.51%였으며 동시부행동 시간비율은 취업모가 9.20%, 비취업모가 9.19%였다. 동시주행동 시간비율과 동시부행동 시간비율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시주행동 시간비율 t=-1.06, 동시부행동 시간비율 t=.01). 이를 통해 행동별 돌봄시간량과 달리 평일에 전체 돌봄시간을 구성하는 행동별 돌봄시간의 비율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주말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Table 10>은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주말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독주행동 시간비율은 취업모가 77.79%, 비취업모가 82.38%로 비취업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The average ratio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of the employed mothers by the day of the week (N=706)

(unit: diary)	Weekdays (*n*=424)		Weekends (*n*=282)		*t*
The average ratio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Mean (%)	S. D. (%)	Mean (%)	S. D. (%)	
Child care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86.92	23.29	77.79	29.14	**4.41** ***
Child care with concurrent activities	13.08	23.29	22.21	29.14	**-4.41** ***
Prim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3.88	11.49	5.88	14.21	**-1.98** *
Second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9.20	20.73	16.33	26.66	**-3.79** ***

*p < .05, ***p < .001

Table 12. The average ratio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of the non-employed mothers by the day of the week (N=1,445)

(unit: diaries)	Weekdays (*n*=842)		Weekends (*n*=603)		*t*
The average ratio of time spent for child care	Mean (%)	S. D. (%)	Mean (%)	S. D. (%)	
Child care without concurrent activities	86.30	18.54	82.38	22.81	**3.47** **
Child care with concurrent activities	13.70	18.54	17.61	22.81	**-3.47** **
Prim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4.51	9.33	3.90	9.29	**1.23**
Secondary activity with concurrent activities	9.19	15.77	13.71	21.57	**-4.38** ***

**p < .01, ***p < .001

(*t*=-2.33, p < .05). 그리고 동시행동 시간비율은 취업모가 22.21%, 비취업모가 17.62%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모가 자녀 돌봄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t*= 2.33, p < .05). 자녀를 돌보면서 부차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시간의 비율은 취업모가 5.88%, 비취업모가 3.90%로 취업모가 더 높았으며(*t*=2.13, p < .05), 다른 행동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시간비율은 취업모가 16.33%, 비취업모가 13.71%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44).

3) 평일과 주말의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교

<Table 11>은 취업모의 평일과 주말의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취업모의 평일 단독주행동 시간비율이 86.92%인 것에 반해 주말의 단독주행동 시간비율은 77.79%로 주말에 자녀만 돌보는 시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4.41, p < .001). 반면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시간비율은 평일이 13.08%, 주말이 22.21%로 주말에 자녀를 돌보면서 동시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t*=-4.41, p < .001). 취업모의 동시주행동 시간비율은 평일이 3.88%, 주말이 5.88%로 주말에 더 높았으며(*t*=-1.98, p < .05), 동시부행동 시간비율도 평일이 9.20%, 주말이 16.33%로 주말에 더 높게 나타났다(*t*=-3.79, p < .001).

<Table 12>는 비취업모의 행동별 돌봄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서 비교한 것이다. 비취업모의 단독주행동 시간비율은 평일이 86.30%, 주말이 82.38%로 주말에 더 낮았다(*t*=3.47, p < .01). 그리고 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시간의 비율은 평일이 13.70%, 주말이 17.61%로 주말에 자녀를 돌보면서 동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47, p < .01). 그런데 동시행동을 동시주행동과 동시부행동으로 구분했을 경우에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동시부행동 시간비율은 평일이 9.19%, 주말이 13.71%로 주말에 더 높은데 반해(*t*=-4.38, p < .001) 동시주행동 시간비율은 평일과 주말 간에 차이가 없었다(t=1.23).

4.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비율 비교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동시에 한 행동비율은 <Table 13>과 같다. 취업 여부와 요일에 상관없이 교제 및 여가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관리, 개인유지가 그 뒤를 이었다. 주의할 점은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 중에서 미취학자녀 돌봄이 있다는 것이다.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미취학자녀 돌봄은 5개 하위영역으

Table 13. The average ratio of time spent for concurrent activities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others (N=2,178)

Concurrent activity(%)	Weekdays		Weekends	
	Employed mothers (*n*=436)	Non-employed mothers (*n*=847)	Employed mothers (*n*=286)	Non-employed mothers (*n*=609)
Child care for child under age 6	0.12	0.49	1.23	0.32
Personal maintenance	19.07	14.39	18.40	17.02
Paid work	0.37	0.03	1.50	0.25
Learning	0.24	-	-	-
Housework	30.44	25.61	21.48	23.18
Family care without young child	2.93	2.70	1.06	1.76
Volunteering work	-	-	-	-
Leisure	40.10	51.12	47.62	48.91
Movement	6.72	5.67	8.71	8.56

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취학자녀 돌봄을 동시주행동과 동시부행동으로 동시에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의 미취학자녀 돌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취학자녀에게 밥을 먹이면서 놀아준다고 응답하는 경우에 신체적 돌봄이 동시주행동이 되고 놀아주기가 동시부행동이 된다.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일에 교제 및 여가활동이 전체 동시행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취업모가 40.10%, 비취업모가 51.12%로 비취업모가 자녀를 돌보면서 교제 및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모의 가정관리 비율과 개인유지 비율은 각각 30.44%와 19.07%로 비취업모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취업 여부에 따른 가용시간의 차이와 행동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취업모가 평일에 퇴근 후에 자녀를 데리고 친구를 만나거나 외출을 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지만 비취업모는 이러한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유지나 가정관리 등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가용시간이 부족한 취업모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취업모가 자녀를 돌보면서 개인유지 및 가정관리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주말의 취업 여부에 따른 동시행동 비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취업모의 경우 교제 및 여가활동의 비율이 47.62%, 가정관리 비율이 21.48%, 개인유지 비율이 18.40%로 나타났는데 비취업모도 이와 비슷하였다. 취업모의 동시행동 시간이 평일보다 주말에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취업모가 주말에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모가 평일에 일을 하느라 하지 못했던 교제 및 여가활동을 주말에 자녀와 함께 하는 경향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돌봄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교제 및 여가활동, 가정관리, 개인유지 행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생활시간조사 상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교제 및 여가활동은 교제활동, 일반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문화생활 · 스포츠 · 취미활동, 여가 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가정관리 행동은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로 나누었으며 개인유지 행동은 수면, 식사, 개인관리,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 요일과 상관없이 교제 및 여가활동 중 미디어 이용이 미취학자녀 돌봄 동시행동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동시행동으로 일어난 교제 및 여가활동 중에서 미디어 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일의 경우 취업모가 78.05%, 비취업모가 73.45%였으며 주말에는 취업모가 70.98%, 비취업모가 68.06%였다. 다음으로 교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취업모의 경우 평일에는 15.24%, 주말에는 20.89%였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평일에는 20.36%, 주말에는 17.00%였다. 평일에 문화생활 · 스포츠 · 취미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취업모가 4.57%, 비취업모가 4.80%였으며 주말에는 취업모가 6.65%, 비취업모가 7.03%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TV 시청 등 수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제 및 여가활동과 달리 동시행동으로 일어난 가정관리 행동은 취업 여부와 요일에 따라 상이하였다. 취업모의 경우 평일에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함께 한 가정관리 행동 중에서 음식준비 및 정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63.05%,

의류관리는 12.05%, 청소 및 정리는 11.24%,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은 10.44%였다. 이에 반해 비취업모의 경우 음식준비 및 정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52.87%였으며 그 뒤로 청소 및 정리(22.02%), 의류관리(13.40%),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9.79%) 순이었다. 즉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평일에 청소를 하면서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 주말의 경우에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음식준비 및 정리(취업모 55.33%, 비취업모 46.99%), 청소 및 정리(취업모 19.67%, 비취업모 30.29%),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취업모 17.21%, 비취업모 13.14%), 의류관리(취업모 7.79%, 비취업모 9.58%) 순이었다. 요일에 상관없이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청소 및 정리를 하면서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하는 가사일의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시행동으로 일어난 개인유지 행동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비취업모의 경우 동시행동으로 발생한 개인유지 행동 중에서 식사 및 간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일이 87.12%, 주말이 82.06%인 것에 반해, 취업모의 경우에는 식사 및 간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일에는 69.23%, 주말에는 70.29%로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식사를 하면서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취업모가 개인관리 행동을 하면서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취업모는 개인위생, 화장 옷 갈아입기 등의 행동을 하면서까지 미취학자녀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을 중심으로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시간 사용 양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취학자녀 돌봄을 주행동 여부와 동시행동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가 평일에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머니가 부행동으로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30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행동 돌봄시간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의 총량이 30분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취업모의 평일 미취학자녀 돌봄을 제외하면 어머니는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동시에 다른 행동을 하는데 40분 이상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를 돌보면서 동시에 다른 행동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전체 돌봄시간의 차이는 주말보다 평일에 더 컸다. 이는 취업모가 평일보다 주말에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비취업모는 주말보다 평일에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긴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평일에 일을 하느라 자녀의 돌봄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취업모는 보상 차원에서 주말에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취업모는 배우자의 영향으로 주말에 자녀를 돌보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행동별 돌봄시간을 비교해보면 평일에는 단독주행동 돌봄시간과 동시주행동 돌봄시간, 동시부행동 돌봄시간 모두 취업모가 비취업모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말에는 단독주행동 돌봄시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취업모는 세 가지 돌봄시간 모두 평일보다 주말에 많았지만 비취업모는 동시부행동 돌봄시간만 평일보다 주말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취업모의 경우 다른 행동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평일보다 주말에 많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방식대로 주행동 돌봄시간만 분석한다면 취업모의 주말 돌봄시간을 더 많이 과소 추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평일의 동시행동 돌봄시간은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많지만 주말의 동시행동 돌봄시간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취업모가 평일보다 주말에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취업모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기 때문이다. L. C. Sayer(2007)는 동시행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취업모가 주말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평일보다 주말에 자녀를 돌보면서 동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다른 행동을 하면서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전체 돌봄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일보다 주말에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주말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이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데에만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함께 한 행동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교제 및 여가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관리, 개인유지, 이동 및 기타가 그 뒤를 이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어머니

가 하는 여가활동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신체적인 여가활동을 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 D. Miller & W. J. Brown, 2005). 이는 어머니가 높은 주의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머니가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면서 미취학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관리의 비율이 높은 것을 통해 미취학자녀 돌봄과 가사노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일의 동시행동을 살펴보면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가정관리 및 개인유지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평일에 개인유지 및 가정관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제 및 여가활동, 가정관리, 개인유지 행동을 세부적으로 분류했을 경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미취학자녀 돌봄과 동시에 일어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정관리 행동이나 개인유지 행동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행동이 상이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일의 경우 취업모는 주행동 돌봄시간뿐만 아니라 부행동 돌봄시간도 비취업모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근로시간이 돌봄시간의 유형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돌봄 시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미취학자녀 돌봄과 함께 일어난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미취학자녀 돌봄의 범위를 확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여가 및 가사노동을 많이 하였다. 이는 미취학자녀 돌봄이 여가 및 가사노동과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처럼 미취학자녀 돌봄을 돌봄 노동 측면에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미취학자녀 돌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미취학자녀 돌봄과 함께 가장 많이 한 행동이 여가활동이라는 점을 통해 여가활동이 기존의 인식처럼 즐거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돌봄의 부담이 결합된 여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취학자녀를 둔 어머니의 여가가 어머니 개인의 여가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 돌봄시간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S. Choi(2014)는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가 여성의 취업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평일과 주말의 미취학자녀 돌봄은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취업모는 평일보다 주말에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미취학자녀를 돌보면서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우선 어머니의 여가가 자녀 돌봄과 결합된 여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말의 가족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취업모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미취학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가족여가프로그램을 주말에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가족여가프로그램이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여가프로그램의 운영은 취업모의 주말 시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S. Hong & S. Kim, 2011). 다음으로 취업모의 개인 여가를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취업모는 개인 여가활동을 통해 자녀 돌봄의 부담으로부터 한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취업모의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취업모의 근무형태에 따른 내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등 직업 지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일제 임금근로자와 시간제 임금근로자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 M. Bianchi, 2000).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돌봄시간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서 동시주행동 돌봄시간과 동시부행동 돌봄시간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행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주행동으로 기록하는데 자녀 돌봄을 동시주행동으로 기록하는 것과 동시부행동으로 기록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동시주행동 돌봄시간과 동시부행동 돌봄시간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 돌봄의 범위를 부행동에까지 확장했는데 부행동으로 기록된 시간이 갖는 측정오차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부행동은 주행동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다고 인식된 행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잊기 쉽고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보고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행동으로 보고된 시간이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R. W. Drago and J. C. Stewart(2010)는 부행동으로 기록된 자료의 측정오차를 검토하기 위해 두 개의 시간일지 자료를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시간조사와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행동 시간의 측정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부행동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시행동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동시주행동과 동시부행동 간의 위계나 부행동으로 기록된 자료가 갖는 측정오차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동시행동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행동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미취학자녀 돌봄과 함께 일어난 행동을 실증적인 분석결과로 제시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를 통해 행동별 시간이 갖는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면 사람들의 시간 사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Bhat, C. R., & Misra, R. (1999). Discretionary activity time allocation of individuals between in-home and out-of-home and between weekdays and weekends. *Transportation, 26*(2), 193-229.

Bianchi, S. M. (2000). Maternal employment and time with children: Dramatic change or surprising continuity?. *Demography, 37*(4), 401-414.

Booth, C. L., Clarke-Stewart, K. A., Vandell, D. L., McCartney, K., & Owen, M. T. (2002). Child-care usage and mother-infant "Quality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16-26.

Cha, S.-E. (2010). Who is the busiest in Korea? A study on gender difference in time pressur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1), 27-49.

Cha, S.-E. (2011). A study on perceived time pressure and time use: Focusing on the employed men and women in Korea by using 1999 and 2009 time diary data.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3), 131-151.

Cha, S.-E. (2013). Weekend time use among married couples: Who are able to sleep more on weekends?. *Family and Culture, 25*(3), 1-30.

Choi, S. E. (2014). Evaluation of social services for infants and children and strategies for improvements.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16*(3), 63-95.

Connelly, R., & Kimmel, J. (2015).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How do mothers and fathers in the US really feel about caring for their children?. *Feminist Economics, 21*(1), 1-34.

Craig, L. (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 Society, 20*(2), 259-281.

Drago, R. W., & Stewart, J. C. (2010). Time-use surveys: Issues in data collection on multitasking. *Monthly Labor Review, 133*(8), 17-31.

Eun, K.-S. (2010). Gender difference in TV viewing time in Korean daily life. *Korean Studies Quarterly, 33*(4), 395-427.

Folbre, N., & Yoon, J. (2007). What is child care? Lessons from time-use surveys of major English-speaking countries.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5*(3), 223-248.

Folbre, N., Yoon, J., Finnoff, K., & Fuligni, A. S. (2005). By what measure? Family time devoted to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42*(2), 373-390.

Heo, S.-Y. (2008). Research on time use for housework of women and men in double income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4*(3), 177-210.

Hong, S., & Kim, S. (2011). The affects on the parents' nurturing behavior &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satisfaction level of weekend family leisure program. *Journal of the Society for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2*(2), 121-139.

Huston, A. C., & Rosenkrantz Aronson, S. (2005). Mothers' time with infant and time in employment as predictors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6*(2), 467-482.

Johnson, S. E. (2010). *Time pressure and the wellbeing of pa-*

rents with young children in Austral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Australia.

Joo, E., Kim, S., & Kim, M. (2014). A study on parental time for preschool children in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30*(2), 367-400.

Jung, T., & Roh, H. (2005). Differences between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mothers in parenting guilt and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0*(2), 211-231.

Kapur, A., & Bhat, C. (2007). Modeling adults' weekend day-time use by activity purpose and accompaniment arrangement.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Journal of the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2021,* 18-27.

Kim, H. J., & Nam, K. S. (2007). A study on change of simultaneous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9*(1), 343-357.

Kim, J. H., & Moon, H. J. (2006). Variables related to the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1), 115-129.

Kim, N. H., Lee, E. J., Kwak, S. Y., & Park, M. R.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renting burden of working mother with young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3), 188-200.

Lee, Y.-H., & Lee, S.-J. (2007). Analysis of the time use of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having preschool children: Centering on the data of the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4.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0*(1), 19-25.

Lee, Y.-M., & Min, H.-Y. (2014).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perception of financial pressure and marital conflict and their influence on child-rearing stress: The mediation of marital conflict.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9*(3), 73-89.

Milkie, M. A., Mattingly, M. J., Nomaguchi, K. M., Bianchi, S. M., & Robinson, J. P. (2004). The time squeeze: Parental statuses and feelings about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3), 739-761.

Milkie, M. A., Raley, S. B., & Bianchi, S. M. (2009). Taking on the second shift: Time allocations and time pressures of US parents with preschoolers. *Social Forces, 88*(2), 487-517.

Miller, Y. D., & Brown, W. J. (2005). Determinants of active leisure for women with young children: An "ethic of care" prevails. *Leisure Sciences, 27*(5), 405-420.

Nam, K. S., & Kim, H. J. (2003). Analysis of simultaneous activities on the time use survey using association rul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5*(3), 625-635.

Offer, S., & Schneider, B. (2011). Revisiting the gender gap in time-use patterns multitasking and well-being among mothers and fathers in dual-earner famil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6), 809-833.

Park, E. J., & Lee, S.-L. (2013). Differences in time deficit and tim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child care time of dual-earner coupe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4), 97-111.

Sayer, L. C. (2007). More work for mothers? Trends and gender differences in multitasking. In T. van der Lippe & P. Peters (Eds.), *Competing claims in work and family life* (pp. 41-55). Cheltenham, UK: Edward Elger.

Shon, A. (2000).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of Time Use Survey. *Survey Research, 1*(1), 135-148.

Sullivan, O., & Gershuny, J. (2013). Domestic outsourcing and multitasking: How much do they really contribute? *Social Science Research, 42*(5), 1311-1324.

Yang, S., & Shin, C. S. (2011). Work-family conflicts: Challenges of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3), 70-103.

Zick, C. D., & Bryant, W. K. (1996). A new look at parents' time spent in child care: Primary and secondary time use. *Social Science Research, 25*(3), 260-280.

☐ Received: March 4. 2016
☐ Revised: June 2. 2016
☐ Accepted: June 13. 2016